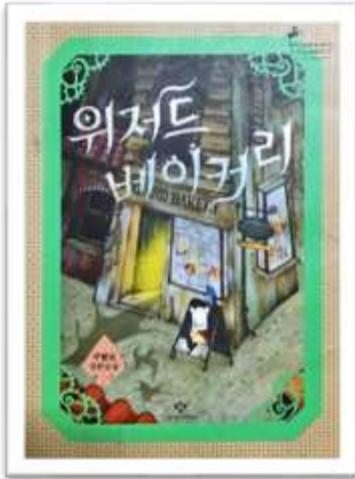


사회에서 ‘평등’ 이란 없다

- 구병모, 『위저드 베이커리』 창비, 2009년 3월 27일 초판

조정환 (BISB Y9 jeonghwan_cho@bisb.sk)



돈이 모든 것인 사회

책의 표지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이 책이 마법과 관련된 빵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아낸 책이라고 생각했다. 가장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것은 표지에 있는 간판이었다. 간판에는 제빵사가 생크림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위저드 베이커리』 라는 큰 간판과 유리창 너머의 빵들이 보였다. 이 책은 그저 독특한 이름을 가진 빵집 ‘위저드 베이커리’ 즉 한국어로 번역하면 마법사 빵집, 그저 특이한 빵집의 이름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갈등과 폭력 그리고 혐오심과 미움이 공존하는 책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책을 거의 다 읽고 나서 표지를 다시 보니 어떤 카멜레온처럼 생긴 길이 1m 정도 되는 갈색 생명체의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생명체의 시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겁을 줘 이 베이커리를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아는 사람만 들어오게 해주는 일종의 위험 표식처럼 보였다. 그리고 ‘위저드 베이커리’로 들어가는 문에서 나오는 노란색 빛과 온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나는 그것이 짐장과 파랑새의 친절함, 따뜻함을 표현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이라는 거대한 틀에 갇혀 야속하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단지 ‘돈’과 ‘권력’만 있으면 인생은 성공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 세 글자도 안되는단어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우리는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최소 12년을 학교에 다니는데 투자한다. 최종적으로 이것은 전부 다 오로지 돈과 권력과 관련돼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즉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권력

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깨달은 사실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쓸모가 생기고 그것이 발전을 거듭해 성숙해지고 자기 자신이 원했던 자신의 모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이야기와 달리 지금 사람들이 마법의 과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 당장의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보다는 대체로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문제 때문. 과열된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소를 가득 담은 풍선만큼이나 끝없이 상승할 수 있다. 감정과 풍선의 공통점은 비 가시권의 높이에서 재풀에 폭발해 버린다는 것. 그에 비하면 현실이란 그넷줄이나 위로 튀어 오르는 공과 같이 억 마나 건조하고 절망적인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곳까지 밖에 오르지 못하고 땅이 잡아당기는 힘을 뿌리 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니까.” -123 쪽-

이 문단을 보고 제일 먼저 수소를 한가득 품은 풍선을 과열된 감정에 비유한 것이 인상 깊었다. 헬륨 또는 수소가 가득 담긴 풍선이 하늘 위로 솟구치다가 한순간에 터지거나 내려오는 현상을 물리적이고 물질적이지 않은 추상적이거나 감성적 문제에 비유해서 나타냈다. 여기서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이 문단에 책의 절정과 결말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인공의 새어머니인 배 선생은 아버지와 주인공이 무희를 성폭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후 집안이 뒤집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정도로 절규와 분노를 뿜었다. 그 순간에 주인공은 타임 리와인더를 줍거나(결말 y), 줍기에 실패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결말 n). 이 상황에서 추상적인 감정인 수소를 한 가득 품은 풍선이 폭발하지 않고 내려오거나(결말 y) 다시 폭발하는 것(결말 n)으로 나는 해석했다.

감정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시선으로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 감정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기도 하고 우울함을 만들기도 한다. 감정과 감성의 차이는 감정은 기분이 좋다, 슬프다, 화가 난다 등과 같이 마음 깊숙한 곳 부터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며 감성은 남의 감정과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슬픔이나 분노나 혐오와 같이 좋지 않은 감정도 있다. 특히 감정은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기울면 좋지 않고 아무리 좋은 감정도 너무 지나치면 병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기뻐하는 것도 지나치게 기뻐하면 실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과 같다. 보통 어린 아이가 어른보다 감정과 감성에 예민하지만, 어린 아이는 어른보다 순수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외부 자극에 대한 느낌이 더 솔직하고 사실적이다. 그 정반대로 어른은 자신의 권위나 주변 상황에 따라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감정을 숨기고 왜곡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는 마음에서 느끼는 그대로를 표현하기 때문에 깊고 많은 감정을 가진다.

“배선생이 내게 사소한 장면들을 하나하나 엮어주어 무게감과 압박감을 키운것 못지않게, 그녀 자신에게도 누적되는 고통들이 있었으리라는 짐작은 쉽게갔다.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일들, 그러나 마치 원소들이 모여 분자를 이루는것처럼. -32쪽-

배선생이 주인공의 아버지와 새로운 살림을 차린 후 자신 스스로가 기대한 새로운 가족들의 대우는 기대 이하였다. 특별히 신경이 거슬리던 주인공과 크고 작은 문제들과 다툼이 오갔으며, 배선생은 주인공에게 혐오감이 생겨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서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완전한 양속 사이를 만들어 버렸다. 마치 반응성이 높은 원소들이 분자를 잘 만들지만 그것으로부터 생긴 분자들도 서로 꾸준히 반응을 하는 것처럼, 앞서 설명한 상황은 얼마나 그 둘이 현재 사이가 안 좋은 지 알 수 있었다.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한 두개의 원소들이 작은 부딪힘을 100번이상 반복해 새로운 분자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일도, 별일 아닌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도, 그것들이 모여 고통과 압박감들이 하나씩 하나씩 누적되어 엄청난 혐오감과 미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작은 일들이 만들어낸 혐오감과 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영원히 남아서 ‘트라우마’가 되는 것처럼.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란

책 『위저드 베이커리』를 쓴 구병모 작가는 특이한 주제로 긴장을 유도하며 집중력을 주는 책을 썼고 현실 세계와 환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판타지 같은 요소를 이용해 사회 문제를 널리 알리고 싶어 하는 작가이다. 청소년 문학이라고 하기엔 자극적인 사회문제를 주제로 하여 영 어덜트 소설을 써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비판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책으로 사회문제를 간접적으로 전해 우리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지를 알려주고 우리 사회를 그녀의 시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때로는 분노할 줄 알고 때로는 슬퍼도 참을 줄 알며, 자신의 감정을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며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만이 주사위처럼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불평등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사회 초년생들에게 전했다. 작가는 이 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물음표를 던지며 판타지 요소인 마법과 실제로 일어나거나 또는 일어날 법한 요소들이 잘 어우러지게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 책에는 다문화 가족 문제, 성폭력 문제, 데이트 폭력, 스토키 등 중범죄와 차별 등의 문제와 판타지요소를 한 책으로 엮어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책의 끝에 있는 작가의 말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과자를 좋아하지도 않을뿐더러, 맛을 잘 느낄 수 없는 불행한 미각 갖고 있고 ‘견과류’ 라는 존재를 싫어하며 특히 팥 앙금을 싫어한다. 아몬드, 호두, 땅콩도 자신의 영혼에 기름이 끼일 것 같아서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이 책에서 나온 먹고 나면 아픔을 잇는 빵, 그런 것은 실제로 있어 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했다. 그 이유는 책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신경회로를 차단하는 것이어서 언제든지 그런 일시적 감각마비는 풀리기 때문이다. ‘고통’ 이라는 존재는 감정처럼 추상적이고 상대적이라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손꼽아가며 지워 달라고 하기엔 하룻밤 안에 주문을 걸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만약 이 빵을 먹고 잠든 후 하루 아침에 세상이 뒤집어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작가는 그녀를 둘러싼 비루하고 야속한 조건들이 조금이라도 바뀌길 바라며, 만약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하지만 그녀가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신의 책에 찬란하고 멋진 문장을 생각해내 쓰는 것이다. 그러면

끝없는 부딪힘의 결과 그녀의 수고가 겹겹이 쌓여 하늘로 올라가고 어느 새 명대사와 명장면이 하나 하나 모여 하나의 완성물이 된다. 그녀는 사회를 돌아가는 원천인 돈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작가이지만,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하루하루 흘러가는 삶을 견디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가 그녀의 진정한 여유로운 분위기가 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잊히는 그것이 진정한 마법이 아닐까?

사회적 편견, 언젠가는 깨질까?

책 『위저드 베이커리』는 우리사회에서 일어날법한 문제들과 먹으면 특별한 효과가 생기는 빵들을 연관해 만든책이다. 책제목과는 다르게 기대했던것 보다 마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은점에서 조금 아쉬웠다. 만약에 마법과 관련된 판타지요소를 내용을 책에 더 넣었다면 좀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법과 판타지 요소를 적게는 이유를 책에서 볼수있는데 그이유중 하나는 작가가 현실에서 생길법한 문제들을 판타지 요소와 같이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것 같다.

미래 한국 사회의 사회적 으로 문제가 되는 미래 사회문제는 대표적으로 저출산·초고령화, 불평등, 다문화 가족, 일자리 감소,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문제, 영아유기 문제, 북한문제다. 그중 우리나라는 사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책에서는 재혼을 안좋게 보는 사람들, 아기를 버리는 영아유기등 여러가지 사회 문제들이 나온다.

한국에서의 고아의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죄수'와 같은 삶과 다르게 없다. 고아는 만 16세 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학교에서는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놀림만 받을뿐더러 고아 들은 만 16세가 되면 아무런 준비 없이 다시 사회로 방출되고, 고아들은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학대로 부터 살아남아야 했다.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아이의 수는 약 27명이다, 무려 한시간에 1명 이상이 버려지는 것이다. 만약 영아를 유기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아기를 버리면 영아유기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어릴 때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버리면 높은 확률로 고아가 된다. 만약에 어린 주인공이 어릴때 아버지에게 청량리역에서 버려진후 사마리안인 같은 착한 행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고아가 됐을 것이다. 주인공이 만약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부모가 아이를 버렸다면 사마리안인 들처럼 고아가 된 아이를 발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이야기처럼 며칠 간의 수사를 통해 부모를 찾는다. 만약에 주인공이 자신의 부모를 못찾았다면 어린 주인공은 보육원으로 이송돼 낮은 확률로 다른 가족한테 입양이 되거나 보육원에서 자라서 어른이 될 것이다.

또다른 사회적 편견인 재혼은 우리나라에 일찍 들어온 유교에 때문인지, 아니면 예날부터 내려온 동화책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은 '새어머니'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 이야기의 모든 시작은 주인공의 새어머니, 배선생과 그녀의 8살 딸 무희로부터 시작되는데 새어머니와의 갈등, 혐오등이 싸여 주인공은 자신의 새어머니를 진작에 자신의 진정한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배선

생'이라는 존재로 받아들인다. 실제 사회에서 새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가 '새어머니'를 '계모'로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의 결혼은 대중적으로 '인생의 동반자' 풀어서 이해하면 인생을 같이함께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기 때 문이다. 옛적부터 가족은 하나의 피가 흘러야 한다고 믿어졌고 새어머니는 나쁜 표현인 '계모'로 받아들여 졌는데 이것은 단지 편견일 뿐이다. 편견을 깨고 다문화, 다혈육의 시대가 언젠가 올것인가?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전과17범 조두순 출소, 조두순 사건은 이 책의 새로운 가족 배선생의 진짜 딸인 8살 무희는 어느날 누군가에게 전치2주 성폭행을 당했고 조두순 사건, 우리나라 2008년과 12년 후인 2020년, 에서도 우리나라를 경악하고 공포에 떨게한 아동 성폭행사건이다, 이야기와 닮아있는 사 건이다, 피해자의 나이가 8살이라는 점이다. 2008년 안산에서 8살아이가 중상해 성폭행을 당했고 가해 자가 과거 17범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12년이라는 징역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었고 재범 가능성도 감 안했을 때 조두순은 일반 사회에 돌아와서는 안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만약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징역이 100년 정도로 사형에 가까운 벌에 처하는데 우리나라는 10분의 1정도의 12밖에 처 하지 않은점에서 우리나라의 벌의 강도가 얼마나 약한지 깨달았다.

맺음말

제2 창비 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인 『위저드 베이커리』 는 미스터리와 호러, 판타지적 요소를 모두 갖춘 작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해 비판했고 평가했으며 그만큼 청소년에게 많은 교훈 을 주었고. 문장이나 사건 전개, 인물 묘사와 특이한 문체로,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마법적 공간을 자 세하게 묘사했다. 다만 악몽 같은 현실과 마법적 공간을 구분하는 고리가 미약하고, 현실 세계에서와의 갈등과 억압을 다루는 데서는 조금 비문학적인 면을 보이는 글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작품을 다시 읽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겼는데, 왜냐하면 읽는 관점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 이야기 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보통 청소년문학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신기한 매력과 동시에 끔찍한 위험을 묘사한다는 하다는 점에서 '위저드 베이커리'의 마법 빵이 갖는 두 개의 다른 의미를 책 안에 내장하고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작품을 자세하게 소화할 수만 있다면, 이 청소년문학들은 새로운 장르를 찾게되고 머릿속에 영화 한 편이 떠 오를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나라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위저드 베이커리』 는 무엇이든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감성적으로 생각한다. 감정이 주는 효 과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행복 느낀다는 것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일이다. 감정은 단순하고, 추상적 이며, 상대적이다. 『위저드 베이커리』 처럼 약이나 마법 빵을 복용해 일시적으로 인공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고도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 없이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없 다. 부정적인 경험을 했기에 작은 것에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부정적인 기분을 피 하고자 도덕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더

기회를 주고 노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인간으로서 더욱 성장하기도 한다. 그러면 긍정, 부정적인 감정의 역할을 알아차리고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기술을 배워간다면 마음의 힘도 함께 커져 어느새 성숙한 어른이 돼 있을 것이다.